

신안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어 달라”

신안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 향후 자유로운 토지거래와 개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13일 신안군 관계자는 “지난해 말 압해면을 제외한 전 지역 602㎢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면서 “국토해양부가 건의서를 심의한 뒤 해제결정을 하기까지 1개월여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안군 지역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오는 8월까지 안좌·팔금·자은·암태·신의·장산·하의·도초·비금 등 9개면을 포함하는 일명 ‘다이아몬드 구역’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정부에

토지 매매 등 재산권 행사·개발 걸림돌

압해면 제외 전 지역 해제 국토부 건의

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05년 지정됐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향후 5년간 조선단지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압해권역(고이·매화리 제외)을 허가구역으로 둘었다.

이처럼 전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둘 이자, 군민들은 자신들의 토지에 대해 소유·매매·이전 등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군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면서 가계운영난을 호소하는 군민들이 부쩍 늘어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군민들은 조선단지 조성지구인 압해면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군당국에 진정하기에 이르렀다.

안좌면 주민 K모(56)씨는 “토지의

투기거래를 막고 실거래가 하락 등을 통해 대규모의 외자·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토지매매가 어려워 자식들의 유학비 등 가계비용을 마련하기 조차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허가구역 지정으로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너무 많아 빠른 시일내에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군민들이 자유롭게 토지를 거래하면서 지역개발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안=조원남기자 wncho@



신안군 임자도 주민들이 13일 수확한 겨울대파를 서울 가락동 농산물시장 등지로 출하하기 위해 화물차에싣고 있다.

신안군은 2만6천여 t의 대파를 생산, 연간 23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다.

/신안=조원남기자 wncho@

“3,500억 조기 발주”

신안 경제위기 극복 회의

신안군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신안군경제대책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군에 따르면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내수경기 침체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로 인식하고 부군수를 단장으로 중소기업 대표 등 19명이 참석하는 신안군경제대책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구성된 경제대책추진협의회에서는 경제위기에 따른 기업애로 사항을 수렴해 해결하고, 경제단체·기관·업체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 제품 판매와 구매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군은 위축된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상반기 내에 각종 사업의 90%인 3천 460억원을 조기 발주하고, 군 예산의 70%인 2천700여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신안=조원남기자 wncho@

목포 퇴직 공무원 ‘시정 살펴보기단’ 29일 출범

목포시가 최근 퇴직한 전직 공무원들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생활 현장 민원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시정 살펴보기단’을 운영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정 살펴보

기단은 15년 이상 목포시에서 공직생활을 하고 최근 5년 이내 퇴직자를 대상으로 8개 분야(기획재정, 투자유치, 사회복지, 관광문화, 도시건설, 환경, 상·하수도, 민원 사항)에 각각 2명을 선발, 16명으

로 구성된다. 시는 오는 29일 시정 살펴보기단 발대식을 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시 관계자는 “시정 살펴보기단은 여론청취 및 전달, 시정업무에 대해 정책건의와 자문, 시정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 및 개선·보완의견제출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일본 전통음식점’ 1호점 문 열어

목포 재팬타운내…일본인이 직접 경영

목포시에 일본인이 직접 경영하는 일본 전통 음식점이 생겼다.

13일 목포시에 따르면 원도심 옛 기업은행 목포지점에서 오거리 간 ‘재팬타운’ 내에 일본인이 직접 경영하는 일본 전통음식점 1호점이 14일 문을 연다.

음식 전문점 조성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만든 재팬타운에 들어선 이 음식점은 일본 베부시 청년회의 소부회장 난리 다카히로 씨 등 2명이 직접 운영한다. 주 메뉴는 전골(스카이카)과 곱창(모초나베) 등이다.



목포시는 재팬타운 내에 9개소의 일식 전문 음식점을 추가 조성해 인접해 있는 목포 맛집 거리, 예술의 거리, 원도심 근대 역사문화자원 등과 연계한 이색 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진도 특산물 명품화 사업 탄력

구기자·율금 이어 검정쌀도 향토산업 선정돼

30억 지원받아…생산서 판매까지 일원화 추진

진도 구기자, 율금, 검정쌀이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정하는 향토산업으로 3년 연속 선정돼 명품화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진도군은 “전국 자체단체 중 2007년 구기자, 2008년 율금, 2009년 검정쌀 등 3년 연속 향토산업으로 선정된 것은 진도군이 유일하다”고 13일 밝혔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농어촌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발굴해 재배, 가공, 관광·서비스 산업과 연계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진도군은 2007년 구기자 10억원, 2008년 율금 30억원 등 향토산업 선정으로 총 4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았다. 이와 함께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검정쌀이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지정돼 내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3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진도군은 1990년부터 검정쌀을 본격 재배하기 시작해 연간 8천 342t을 생산하고 있는 등 우수한 생산 인프라를 갖춰 향토산업으로 선정됐다.

현재 진도군은 검정 쌀 재배면적 뿐만 아니라 검정쌀 전문 RPC

등 기본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어 전국 검정쌀 유통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 검정쌀 기술 개발·홍보·마케팅 전반과 능촌 체험관광 등 생산부터 판매까지 일원화를 통해 명품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 ‘검정쌀의 향과 색을 이용한 글로벌 산업화 육성 프로그램’을 본격 실행하고 마케팅과 품질 관리에 집중 투자해 검정쌀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판매증진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구기자, 율금, 대체 등에 대한 지역적 표시제를 추진하는 등 진도군 특산품의 브랜드화를 위한 기반도 다지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2010학년도 교사 임용시험대비

* 교과교육학 학습방법론 강의

* 2차 시험 대비를 위한 논술 첨삭지도 실시

국내영교육학

교사임용, 진짜 승부는 교육학에서 결정된다!

국내영교육학에서 습득한 학습방법론이야말로

교사임용시험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겨울방학특강 사전예약접수중

개강 : 1월 2일(기본 이론 2개월완성)

똑똑한 강의 선택!
한 번 배워 평생가는
학습방법론 제시
직접 확인하십시오.

서울대 대학원 교육학 전공의 정통파
국내영 선생 저자직강

교원임용 동영상강의 전문 - www.eduvieview.net

에듀뷰넷

▶ 교원임용 공개설명회 : 비전 임용시험제도 안내 및 효율적인 학습방법 상담

▶ 등록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방문 전화 주십시오.

교원임용고시 전문

<p